

# 프랑스어단어조성에 대한 분석

리 일 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학습을 잘하자면 기초부터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단어의 원형과 변화법, 어순도 똑똑히 알지 못하고 번역부터 하자고 서두르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도 소득이 얼마 없습니다.》

언어의 어휘구성을 풍부화하는 기본수단으로서의 여러가지 류형(형태론적, 문장론적, 의미론적)의 단어조성은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의 단어조성적수단의 성격은 그의 문법구조의 성격에 의존하고있다. 여러가지 구조의 언어들(굴절어, 교착어 및 기타 언어들)에 있는 단어조성적방법은 바로 해당 구조의 전형적인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

실제로 로씨야어, 도이칠란드어, 라틴어, 그리스어를 비롯하여 인디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가운데서 문법구조가 굴절어에 속하는 언어들에서는 형태조성에 있어서나 단어조성에 있어서 굴절의 수법 즉 덧붙임법(앞붙임법과 뒤붙임법, 앞뒤붙임법)이 사용될뿐 아니라 어음교체가 있다.

프랑스어를 포함하는 로만어들에서 특징적인 새 단어만들기수법에는 접사법(접두사법, 접미사법, 접두사-접미사법), 합침법(형태론적합침법, 문장론적합침법), 품사바꿈법들이 있다. 이밖에도 생략과 소리본뜬단어만들기수법이 있다. 새 단어만들기수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접사법이고 기타는 보충적인 수법들이다.

언어에서 새 단어만들기과정이 부단히 생기게 되는것은 두가지 요인과 관련되어있다. 하나는 이름지어야 할 대상이 부단히 늘어나는 객관적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단어사용의 언어내적요구이다.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이 인식되거나 사회생활의 변화발전과 함께 거기에서 새로운 측면이 나타나면 그에 따르는 새로운 언어적표식,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인식내용도 확대되어 새롭게 이름지어야 할 대상, 현상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cybernétique, robot, cybernétiser, robotiser, révolutionnariser 등)

단어만들기의 중요한 대상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이름과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실질적단어부류들이다. 이것들은 객관세계의 대상, 현상, 그 표식들의 분류에 해당하는 단어부류들이다. 이름지어야 할 대상, 현상이 실질적인 대상인가, 과정인가 아니면 그것들의 표식인가에 따라 그것들의 이름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중 어느 한 언어적표현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단어조성은 새로 인식된 대상, 현상이 새 단어로 고착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 단어가 언어교체의 더욱더 다양한 계기에서 쓰이게 되면서 본래의 전형적인 기능에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다른 2차적기능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기능의 변화와 함께 형태의 변화(변형)도 있게 된다.

실제로 처음에 명사로 언어에 고착된 robot는 명사의 문장론적기능들인 주어나 보어의 위치에서뿐만아니라 점차 규정보어로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사용의 요구로부터 robotique라는 형용사도 생겨난것이다.

형태론적구조의 측면에서 단어들은 단순단어, 파생단어, 합성단어로 나눈다.

프랑스어사전에는 단순단어가 30%, 파생단어가 60%, 합성단어가 10%이다. 보는바와 같이 어휘구성의 약 70%는 파생단어와 합성단어들이다.

단순단어, 파생단어, 합성단어들사이의 경계는 언제나 뚜렷한것이 아니다.

합성단어가 파생단어로 되고 파생단어가 단순단어로 변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형태론적구조가 단순화될수 있다.

실례로 프랑스어에서 요일을 가리키는 단어들인 lundi, mardi, mercredi 등은 고대프랑스어에서 합성단어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répéter, remercier에서 접두사 re-나 soleil, montagne 등에서 접미사 -eil, -agne를 갈라볼수 없을 정도로 이 단어들은 구조가 단순화되었다.

단어의 형태론적구조가 단순화되는 원인은 여러가지이다. 그것은 단어의 개념의 발전과 함께 그 구성요소들과의 의미적연관이 멀어지거나 또는 어음변화로 하여 어근단어와 어음론적연관이 없어지거나 멀어질 때에도 일어날수 있다.

례: pommade (<pomme) , chenet (<chien) , prunelle (<prune)

단어의 형태론적구조가 단순화되는 경향과 함께 그 반대의 과정 즉 단순단어가 두 형태부로 분해되는 경향도 있다.(décomposition) 이리하여 언어에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부들이 생겨나게 된다.

접미사 -bus(minibus, microbus, trolleybus, bibliobus, aérobus 등)는 원래 라틴어단어 omnibus(omnis의 복수여격 《pour tous》)의 격어미였다. 그 단어가 train omnibus와 결합되어 쓰이면서 단어 omniscient, omnivore들과의 대비의 결과 -bus가 voiture일반의 뜻으로 분석된것이다.

프랑스어의 과학용어에서 적극 쓰이고있는 접미사 -tron(positron, magnétron, phyton, synchrophasotron, cyclotron, cénotron)도 1891년 원자의 구조에서 전자의 발견과 함께 그리스어 electrôn(=ambre)이 도입되어 갈라져나온것이다.

새로운 형태부(접미사)는 파생단어의 형태론적분석을 종전과 달리 진행하는 결과에 의해서도 생긴다.

실례로 chevalerie는 원래 단어 chevaler에 접미사 -ie가 덧붙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단어를 cheval+erie형식으로 분석하면서 언어에는 새로운 접미사 -erie가 생겨나게 되었다.(maïserie, jalouserie 등)

이와 같이 단어의 형태론적구조는 부단한 변화과정에 있으며 언어의 새 단어만들기 수단들도 끊임없는 갱신과정에 있다.

프랑스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조성수법은 접사법에 의한 단어조성이다.

새 단어는 형태부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어조성본보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실례로 incompréhension이라는 단어는 3개의 형태부 in-compréhen-sion이 차례로 합해져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incompréhensible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하여 compréhensible에서 compréhension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본따서 만든것이다.

이와 같이 파생단어는 언제나 일정한 출발단어와 관련되어있으며 일정한 파생적본보기를 전제로 한다.

파생의 기초에 있는 단어와 파생단어와의 쌍을 파생쌍이라고 부른다.

파생적인 단어조성본보기란 결국 이러한 파생쌍이 얼마나 규칙적인 계열을 이루는가

하는데 있다. 새 단어조성과정은 주어진 단어조성본모기를 새로운 언어자료 즉 새로운 파생쌍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두 단어를 파생쌍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실례로 équestre는 cheval과 파생쌍으로 될수 없으며 éveiller는 veiller와 파생쌍을 이룰수 없다. 첫째 경우에는 두 단어사이의 그 어떤 어음론적연관이 없으며 둘째 경우에는 의미론적연관이 없다. 따라서 파생쌍은 두 단어사이의 파생관계가 어음-의미론적으로 확인되는 단어쌍인것이다.

프랑스어에서 입말기원의 고유어와 라틴어에서 차용한 서적어사이의 파생관계는 비전형적인것이다. 전형적인 파생관계는 고유어단어들사이에서와 서적어단어들사이에서만 있다.

례: ○ 고유어의 전형적인 파생관계

long→ longueur

bas→ bassesse

○ 서적어의 전형적인 파생관계

docteur→ doctorat

acteur→ actrice

프랑스어단어조성에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것은 두가지 단어만들기체계가 나란히 존재한다는것이다. 그 하나는 고유프랑스어단어만들기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서적어단어만들기체계이다.

이 두 체계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고유어단어만들기체계는 고유어어간을 리용하고있지만 서적어단어만들기체계는 라틴어어간을 리용하고있다.

례: sortir→ sortable, voir→ visible

buvons→ buvable, pouvoir→ possible

또한 고유어단어파생에서는 어간과 접사의 결합이 교착적성격을 가지지만 서적어단어파생에서는 융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간과 접사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거나 련결말소리가 나타난다.

례: chanter→ chanteur, actuel→ actualité

프랑스어에서는 합침법에 의한 새로운 단어조성도 매우 적극적이다.

합침법은 두개의 단어조성적말뿌리가 하나의 말뿌리로 통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단어조성방법이다. 합침법으로 새로운 어휘적단위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리용하는 요소들은 모두가 언어행위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될수 있다.

합침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문장의 진술내용을 분석적방법으로 표현하는 프랑스어단어조성연구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합침법에는 합성단어가 단어결합(즉 적극적인 문장론적관계를 체현하고있는 두 단어의 결합)과 형태적으로 구별되는것과 구별되지 않는것이 있다.

첫번째 경우를 형태론적합침법이라고 하며 둘째 경우를 문장론적합침법 또는 분석적합침법이라고 한다.

합성단어는 단어결합과는 달리 의미의 전일성과 형태의 전일성으로 특징짓는다. 형태의 전일성은 어음구조, 형태론적구조, 문장론적표식으로 확인할수 있다.

합성단어에서는 우선 의미론적전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합성단어는 하나의 개념, 대상을 가리키므로 의미론적통일체를 이루고 한 단어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대등한 단어로 대신되거나 번역될수 있다.

예: verre à bière = chope, pot à eau = carafe, prendre part = participer

한편 합성단어의 구성요소들을 동의어 또는 반의어로 교체하는것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위의 실례에서는 그 어느 요소도 교체하여 쓸수 없다.

합성단어에서는 또한 형태론적전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합성단어의 구성성분에서 관사를 비롯한 규정사의 생략이 합성단어의 전일성을 말해주는 형태론적표식으로 된다.

실례로 합성동사의 구성요소인 종속명사는 규정성을 띠지 못하고 미정성을 띤다. 이 현상은 흔히 관사가 없이 나타나는데서 잘 알수 있다.(avoir envie, avoir lieu)

관사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된 명사는 대상지시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관계문장의 선행사로 될수 없다.

문장론적합침법으로 만들어진 합성단어의 전일성의 형식적표식은 그 구성요소가 확대성분을 가질수 없는데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합성단어가 하나의 의미론적통일체를 이루므로 합성단어요소들을 분리하여 규정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실례로 enduire de graisse에서 명사성분은 확대할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enduire de graisse qui le salit les doigts라는 식으로 확대성분을 가질수 없다.

프랑스어의 단어만들기수법들가운데서 품사바꿈의 수법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프랑스어품사들이 형태론적표식을 단어안에 가지고있지 않으므로(어휘적단위의 형태론적범주들은 분석적으로 다시말하여 단어밖에서 문법적조사들을 가지고 표현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의미적품사들사이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품사바꿈의 형태들이 실현된다.

우리는 프랑스어단어조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합리적인 단어습득의 방법론을 가지고 외국어를 원만히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